

## 제목 : 인간 실격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들과 정신적, 육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 인간이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소속감을 가지게 되지 못한 인간은 서서히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말것입니다. 인간 실격은 1948년 7월 28일 일본의 쇼와시대때 탄생한 작품으로 다자이 오사무가 집필한 소설입니다. 당시의 쇼와시대는 침략 전쟁을 일삼던 일본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변하게된 일본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실격은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마지막 작품으로, 다자이 오사무와 인간 실격의 주인공은 다자이 오사무가 소설속에 자신을 투영해서 쓴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 또한 요조와 같이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는 물론 친구들 과의 관계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마르크스 주의에 빠진 다자이에게 계속 그런 활동을 할것이면 경제적 지원을 그만 두겠다고 하기도 했으며, 다자이가 자기혐오에 빠져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을때 친구들은 요양으로 속이고 다자이를 정신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유서라는 말도 있는 인간 실격은 가족들에게조차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여 정신이 붕괴되는, 가족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한 행동으로 인해 버림받고, 그 누구보다 사랑과 소속감을 갈구한 상류층이었던 기구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인간 실격은 서문, 제 1 수기, 제 2 수기, 제 3 수기, 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문에서는 '나'가 수기에 나오는 주인공 '요조'의 유년시절 사진, 학생시절 사진, 기괴한 사진 총 3장의 사진을 본적이 있다는 말과 함께 사진의 순서 대로 수기는 유년기 시절 부터 시작 됩니다. 유년기 시절 요조는 남들과는 달리 선천적으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 요조가 살고있는 저택에서 일하고 있는 하녀와 하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말싸움과 자기변명도 못하는 도화지 처럼 깨끗한 성품을 가진 요조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그들이 요조를 더 이상 자식 취급을 안해줄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린나이의 요조는 가족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기에, 가족으로부터 소속감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성추행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인하게 되고 이는 요조에게 있어 가족들에게 더더욱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요조는 남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데, 출장으로 선물을 사올것이니 무엇이 가지고 싶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요조는 말 하기를 망설였습니다. 무엇이 갖고 싶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요조는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 진것 입니다. 요조가 망설이자 아버지는 요조가 책이 가지고 싶은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책 대신 사자탈은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조의 말형이 요조는 책을 좋아할것이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흥이 깨진 표정으로 사올 물건을 적을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때 요조는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것으로 인해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까 불안감에 떨게 됩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만들어낸 광대의 모습을 연기하던 요조는 아버지가 잠든 저녁 몰래 아버지의 침실에 들어가 아버지의 수첩에 전혀 가지고 싶지 않은 사자탈이라는 글을, 거짓된 소속감이지만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고 나가버립니다. 해당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는 요조를 행동이 독특한 귀여운 막내로 인식하게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가면을 쓰고 소속감을 원하며 살아가는 요조의 모습은 인간 관계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품속 요조에게서 들어나는 개인주의와 인간을 불신하고 경계하는 태도로 인해 현대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애독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실격은 여러 예술작품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패러디가 존재한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인생에서는 주인공의 첫번째 남자친구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다자이 오사무의 환생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인간 실격은 현대 뿐만 아니라 1940년대 책이 발행 되었을 당시에도

불안하고 우울한 일본의 시대상과 딱 들어맞아 큰 인기를 끌어 초판을 출간한 신초샤 문고 출간본만 해도 600만 부가 팔렸었을 정도 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은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유형인 사람의 뛰어난 심리묘사와 순간의 선택의 실수로 인한 인생의 나락, 인간이 중독 되어가는 과정,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을때의 심정, 사랑하는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했을때 자신만 살아남았을때의 죄책감과 그럼에도 살아있다라는 안도감,

가장 위로가 되는 유서 일것 입니다.

